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및 양육효능감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박화윤^{1*}, 마지순^{2*}

¹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²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effect of maternal attachment and parenting efficacy on infant-mother's interactions

Wha-Yun, Park¹ and Ji-sun, Ma^{2*}

¹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²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양육효능감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G시의 어린이집 영아와 영아의 어머니 1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양육효능감,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냉담은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전체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 전반적 양육효능감은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존재하였다. 교육과 통제는 양육자의 언어적 모델링과,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의사소통, 통제, 전반적 양육효능감이었으며,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에서는 접촉추구, 결속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 of maternal attachment of infant and parenting efficacy on infant-mother's interaction. The subject were 180 infant and their mother who were early childhood education service in G city. Data analysed with Pearson correlation,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howed tendency of normal level that mother's attachment and parenting efficacy to infant, infant-mother's interaction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attachment of infant and infant-mother's interactions.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infant-mother's interactions. Fourth, the mother's attachment of infant and parenting efficacy has effect on the infant-mother's interactions.

Key Words : Parenting Efficacy, Maternal Attachment, Infant-Mother's interaction

1. 서론

인간은 다른 사람과 사회, 정서적 유대를 지속적으로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행동이 나타나는 영아기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특히 생의 초기에 형성되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질은 영아가 성장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사회, 정서, 언어, 인지발달과 관련됨이 밝혀져 왔다[1,2]. 영아와 어머니가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과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반응이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3 year study funds of Wonkw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Ji-sun Ma (Wonkwang Health Science Univ.)

Tel: +82-63-840-1297 email: jisunsky@wu.ac.kr

Received May 3, 2013

Revised (1st May 27, 2013, 2nd June 5, 2013)

Accepted June 7, 2013

영아기에 맺어진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는 인간의 모든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3].

영아의 애착은 성인의 내적실행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Ainsworth 와 Bowlby의 이론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어머니의 내재적 특성인 인지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부모 양육의 인지적 요인을 비롯한 양육의 특성이 부모 자신의 자아형성과 실제 양육행동 및 영아의 직간접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4]. 영아기에 형성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영아의 애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언어발달, 정서지능, 표현능력, 문제해결능력, 호기심, 자기통제력 등과 같은 영아기 이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즉, 기존의 애착에 관한 연구가 영아 측면에 치중하여 영아 주도적인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적절한 반응을 의미하는 민감성을 제시하였다면,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자녀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결속이며, 종의 생존을 위해 생물학적으로 내재된 헌신적인 보호라 할 수 있다[6].

어머니의 내재적 특성인 영아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강조되는 양육효능감은 영아의 심리 사회적 적응, 인지능력과 같은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7].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Bandura[8]의 자아효능감 개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것으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7].

그러므로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도움을 돕고, 자녀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제공하며, 양육행동의 근원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을 지닌다[9].

선행연구들[10,11]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자녀를 잘 이해하고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양육과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자녀의 인식에 더 긍정적이고 자녀가 다른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9]. 이러한 연구를 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영아의 양육과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와

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내재적 특성 중 하나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으로 표출되는 영아-어머니 상호작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양육효능감,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양육효능감의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G시의 어린이집 18개소의 만 2세 영아반 180명 영아와 영아의 어머니이다. 연구대상표집은 G지역 보육정보자료에 나타난 기관의 소재분포를 보고 종류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25개 기관을 임의 표집을 한 다음 전화나 직접방문에 의해 원장과 교사의 동의를 얻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여 수합이 완료된 18기관 만 2세반 28학급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영아의 평균 월령은 38.6개월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Background of subjects

		Variable	N(%)
Infant		boy	96(53.3)
		girl	84(46.7)
mother	age	under 25 years old	2(1.1)
		26years old~29years old	12(6.7)
		30years old~34years old	83(46.1)
		35years old~39years old	70(38.9)
		above 40 years old~	13(7.2)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5(2.8)
		high school	35(19.4)
		college	67(37.2)
		university	57(31.7)

vocation	over graduate school	16(8.9)
	employment	89(49.7)
	unemployment	90(50.3)
	non-response	1()

2.2 검사도구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검사도구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황현주(2005)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어머니 애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타당화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검사도구의 하위영역은 아이에 대한 사랑스러움과 긍정적 정서 11문항, 신체적 접촉을 즐기는 접촉추구 7문항, 기분이 좋지 않아도 아이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온정을 나타내며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 일어나는 자기희생적 온정 9문항,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보고 싶은 근접추구(분리불안) 4문항, 아이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 5문항, 아이와 한 몸 같이 느끼고 아이의 미소에 반응하는 결속(일치성) 6문항, 아이에게 별 느낌이 없고 무관심한 냉담 4문항, 아이를 다른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아이 양육이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기대감 3문항의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다시 산출한 영역별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a는 긍정적정서 .97, 접촉 .88, 자기희생적 온정 .75, 근접추구 .83, 보호 .75, 결속 .79, 냉담 .75, 기대감 .63, 전체는 Cronbach' a .93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검사도구

본 연구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조영숙(2007)에 의해 제작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12]. 하위 영역은 자녀의 생각이나 요구를 이해하는 능력과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의사소통 영역 8문항, 양육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및 규범의 지도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일관적인 지도능력을 의미하는 교육 영역 8문항, 부모로서 느끼는 전반적인 상황이나 느낌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전반적 양육효능감 영역 5문항, 자녀의 행동이나 감정적인 문제에 효과적인 대처능력을 의미하는 통제 영역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다시 산출한 결과 영역별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a는 의사소통 .81, 교육 .83, 전반적 양육효능감 .60, 통제 .44 이며 전체는 Cronbach' a .77이었다.

영아-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검사도구

본 연구의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Abbott Shim & Sibeiy(1987)에 의해 개발된 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PECP)을 번역하여 사용한 박수빈(2004)의 연구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3].

본 도구는 총 32문항으로 되었으나 본 연구대상인 만 2세반 영아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사한 문항내용 5문항을 삭제한 후 유아교육 현장전문가 2인과 유아교육 교수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도구는 긍정적 상호작용 5문항, 양육자의 언어모델링 4문항,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3문항, 양육자의 긍정적인 태도 4문항, 민감한 반응 11문항 총 27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다시 산출한 결과 영역별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a는 긍정적 상호작용 .79, 언어적모델링 .74,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66, 긍정적 태도 .59, 민감한 반응 .75, 전체는 Cronbach' a .90이었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에 사용할 도구의 적절성 및 문제점, 소요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예비 연구는 2012년 7월 19일에서 7월 20일까지 본 연구 대상이 아닌 2곳의 만 2세반의 영아와 그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항의 문장이해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질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20-25분 정도였다.

연구대상으로 표집 된 18개 어린이집 만 2세반 영아를 대상으로 담임교사들이 2012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가정통신문과 함께 질문지 210부를 배포하고 직접 회수 한 결과 198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것 중 응답이 완전하지 않거나 불충실한 18부를 제외한 18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연구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및 양육 효능감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어머니의 애착 및 양육효능감의 예측변인을 알아보고자 다중공선성을 진단

하여 단계적회귀분석의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애착, 양육효능감의 변량팽창계수(VIF)는 1.05~2.53의 범위를 나타냈다. 변량팽창계수가 10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14]이를 넘지 않아 독립변인들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가 심각한 다중공선성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은 종속변인으로 넣고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애착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넣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양육효능감,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경향성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양육효능감,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Table 2와 같이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양육효능감,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의 평균[3.19(2.67), 3.08(2.77), 3.03(2.09)]로 보통 이상인 것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양육효능감,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은 보통이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able 2] The tendency of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 parenting efficacy, and infant-mother's interaction

variable		M	SD
maternal attachment	positive emotion	3.57	4.33
	contact pursuit	3.53	3.11
	kindliness of self-sacrifice	3.41	3.70
	closest pursuit	3.41	2.08
	protection	3.25	2.29
	solidarity	3.34	2.44
	indifference	1.62	2.10
	expectation	3.38	1.31
total		3.19	2.67
parenting efficacy	communication	2.99	2.88
	education	2.78	3.34
	general parenting efficacy	2.94	2.00
	control	3.61	2.84
	total	3.08	2.77
infant-mother's interaction	positive interactions	3.10	2.35
	mother's verbal modeling	3.10	1.70
	mother's positive attitude	2.91	1.66
	promotion of interactions	3.01	1.33
	sensitive reaction	3.05	3.40
	total	3.03	2.09

3.2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관계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Table 3와 같이 정적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578, p<.001$). 특히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가장

[Table 3] The correlation among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 and infant-mother's interaction

infant-mother's interaction \ maternal attachment	positive interactions	mother's verbal modeling	mother's positive attitude	promotion of interactions	sensitive reaction	total
positive emotion	.373***	.327***	.236***	.287***	.362***	.405***
contact pursuit	.508***	.472***	.395***	.455***	.532***	.598***
kindliness of self-sacrifice	.295***	.287***	.446***	.299***	.458***	.457***
closest pursuit	.275***	.217**	.164*	.216**	.295***	.304***
protection	.384***	.405***	.391***	.364***	.490***	.518***
solidarity	.396***	.463***	.447***	.399***	.538***	.568***
indifference	-.403***	-.251**	-.319***	-.189*	-.278***	-.366***
expectation	.298***	.308***	.225**	.193**	.358***	.362***
total	.442***	.448***	.412***	.411***	.549***	.578***

P<.01, *P<.001

높게 나타났으며($r=.549, p<.001$),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이 가장 낮은 정적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411, p<.001$). 그러나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중 냉담은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전체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366, p<.001$).

하위영역별로 보면, 긍정적 정서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존재하였다($r=.373, p<.001$). 접촉추구($r=.532, p<.001$), 자기희생적 온정($r=.458, p<.001$), 근접추구($r=.295, p<.001$), 보호($r=.490, p<.001$), 결속($r=.538, p<.001$), 기대감($r=.358, p<.001$)은 모두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냉담은 긍정적 상호작용과 가장 높은 부적상관($r=-.403, p<.001$)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이 높으면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중 냉담이 높으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긍정적 정서가 높으면 긍정적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접촉추구, 자기희생적 온정, 근접추구, 보호, 결속, 기대감이 높으면 민감한 반응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냉담이 높으면 긍정적 상호작용은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Table 4과 같이 정적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691, p<.001$). 특히 양육효능감 전체와 민감한 반응은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r=.601, p<.001$). 의사소통영역은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전체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23, p<.001$). 하위영역별로 보면, 의사소통($r=.555, p<.001$), 전반적 양육효능감($r=.473, p<.001$)은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존재하였다. 교육($r=.407, p<.001$)과 통제($r=.430, p<.001$)는 양육자

의 언어적 모델링과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으면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민감한 반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에서는 의사소통, 전반적 양육효능감이 높으면 민감한 반응이 높고, 교육과 통제가 높으면 양육자의 언어적 모델링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4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양육효능감의 영향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애착의 영향은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의사소통의 정적인 영향력은 38.6%를 설명하고 접촉추구는 16.3%를 추가하고, 통제는 26%, 결속은 17%, 전반적 양육효능감은 13%를 추가로 설명하여 총 60.5%를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의사소통, 접촉추구, 통제, 결속, 전반적 양육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효능감이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양육효능감,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보통이다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보통이상이었다 [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난 [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되어

[Table 4] The correlation among parenting efficacy and infant-mother's communication

parenting efficacy	infant- mother's interactions	positive interactions	mother's verbal modeling	mother's positive attitude	promotion of interactions	sensitive reaction	total
	communication		.494***	.491***	.489***	.437***	.555***
education		.348***	.407***	.394***	.353***	.401***	.471***
general parenting efficacy		.390***	.404***	.338***	.464***	.473***	.518***
control		.305***	.430***	.368***	.372***	.376***	.452***
total		.512***	.587***	.542***	.538***	.601***	.691***

***P<.001

[Table 5] The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attachment on infant-mother's interaction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R^2	ads. R^2	F
infant - mother's interactions	constant	38.368				
	communication	1.833	.624	.389	.386	112.909***
	constant	19.508				
	communication	1.397	.476	.554	.549	109.492***
	contact pursuit	1.182	.432			
	constant	20.043				
	communication	1.253	.427	.582	.575	81.257***
	contact pursuit	1.075	.393			
	control	.466	.182			
	constant	16.562				
	communication	1.151	.392			
	contact pursuit	.837	.306	.601	.592	65.570***
	control	.419	.163			
	solidarity	.618	.178			
	constant	14.651				
communication	11.003	.341				
contact pursuit	.731	.267	.616	.605	55.487***	
control	.383	.149				
solidarity	.623	.180				
general parenting efficacy	.662	.145				

***P<.001

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자녀양육 행동의 실천을 강조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냉담은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전체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영아에게 느끼는 애착이 높으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민감한 반응의 상호작용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냉담이 높으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애착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5]와 일치하는 것이며 부모의 적극적 참여나 자극이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6,14]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이 높게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반면 냉담이 높으면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이 낮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어머니가 영아에 대하여 부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소통, 전반적 양육효능감은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존재하였다. 교육과 통제는 양육

자의 언어적 모델링과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으면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반응의 상호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어머니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영아에게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여줄 수 있으며, 교육과 통제 효능감이 높으면 어머니가 영아에게 좀 더 많은 언어적 모델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으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1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 때 민감한 반응의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 및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실행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내재적 특성인 양육효능감이 외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나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영아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는 어머니의 내재된 양육효능감을 발현시킬 수 있는 내용의 구성이 요구된다.

넷째,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의사소통, 통제, 전반적 양육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아-어머니의 초기 상호작용과 영아의 요구에 대한 부모의 민감한 반응이 중요하다[2]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의사소통, 통

제, 전반적 양육효능감이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효능감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통제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이나 감정적인 문제에 효과적인 대처능력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인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반적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가 영아 양육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영아에게 상호작용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어머니 애착은 접촉추구, 결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이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관련 연구결과들[2] [7]과 같은 맥락으로써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의 중요성을 재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결과이다. 특히 어머니가 영아와 신체적 접촉을 즐기는 접촉추구와 아이와 한 몸 같이 느끼고 아이의 미소에 반응하는 결속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애착이 정서적 결속이라는 이론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접촉추구와 결속을 지향하는 어머니의 애착이 영아에게 좀 더 허용하고 반응적이고 더 민감하게 영아에게 상호작용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영아 양육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이 영아의 입장에서 강조된 연구들이 이루어진 반면 어머니의 입장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영아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결속인 애착과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위의 논의를 중심으로 시사점 및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영아 2세만을 대상으로 하여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측정되었다 볼 수 있으므로 영아 전체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심도있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애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어린 연령의 발달에 따른 어머니의 애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이 높은 것은 어머니 자신의 관점에서 영아에 대하여 느끼는 내재적인 성향이 외현적으로 표출되는 양육행동 중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과 양육신념에 대하여 점

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부모교육프로그램 구성시 어머니가 영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더불어 자신의 부모양육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사고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가 자신의 애착과 양육효능감 및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자기 보고식으로 작성되어 단편적인 면만을 측정되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전문가의 관찰이나 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서 좀 더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효능감에 따라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질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느끼는 애착과 양육효능감이 상호작용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어머니의 내재적인 특성인 애착과 양육효능감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S. Y. Park., & S. J. Soe., & Bornstein, M. Mother-Infant Interacion Styles Associated Infant Development. *The Child Study*, 26(5), 15-30. 2005.
- [2] J. H. Han. The study of infant's Temperament, Infant's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across situ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Nam University. 2005.
- [3] M, O. Kim.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infant and mother inter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2007
- [4] Klaus, M. H. & Kennell, J. H. Parent-infant bonding. St. Louis, Mo: C.V. Mosby. 1982.
- [5] Seo, S. Martenal self efficacy, quality of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al outcomes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from Early Head sta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2003.
- [6] H. J. Hwang. A study on mother's atcthment to her infan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05.
- [7] Bandura, A. Self-efficacy mechanisms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1982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37.2.122>

- [8] H. S. Choe.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4), 111-123. 2005
- [9] J. Y. Ahn.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trend of early education and maternal parental beliefs, stress, and achievement pressur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11), 95-111. 2003.
- [10] Teti, D. M. & Gelfand, D. M.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1991.
DOI: <http://dx.doi.org/10.2307/1131143>
- [11] Coleman, P. K. & Karraker, K. H.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1997.
DOI: <http://dx.doi.org/10.1006/drev.1997.0448>
- [12] Y. S. Cho.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maternal behavior, and maternal parenting efficacy on preschool children's self regulation.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008.
- [13] S. B. Park. The Relations between Infant Temperament and Infant-caregiver Inter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2004.
- [13] D. S. Kim., & N. J. Kang. **Base and Application of Regression**. Seoul: Na Mam. 2000
- [14] Maccoby, E. E., & Martin, J. A. Socialization in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series Ed.),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3rd ed., pp.1-102). New York: Willy. 1983.
- [15] B. W. Cho. Study on dependence of preschooler' emotional intelligence o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verbal control styl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2), 133-157. 2012.
- [16] S. O. Hong., & S. H. Kim.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according to the mother's background, *The child study*, 29(6). 2008.

박 화 윤(Wha-Youm Park)

[정회원]



- 197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문학석사)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문학박사)
- 1977년 3월 ~ 1982년 2월 : 기전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1982년 3월 ~ 1985년 2월 : 광주보건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1985년 9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놀이지도, 부모교육,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마 지 순(Ji-sum Ma)

[정회원]



- 2001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2009년 2월 ~ 2013년 2월 :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13년 2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사론, 유아교육과정